

잃어버린 시공간 속에서 찾아낸 '우리의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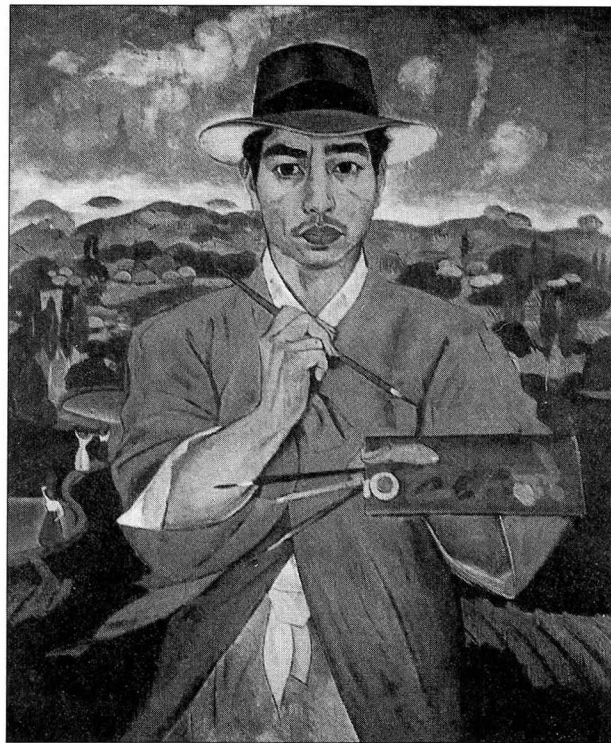
월북미술가 이쾌대의 예술인생과 작품 탐구

월북미술가 이쾌대(1913~1987?)의 예술인생과 작품을 재조명한 연구서 《이쾌대》(열화당)가 미술평론가 김진송(36·현실문화연구 대표)씨에 의해 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 91년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린 '월북작가 이쾌대전'에 모아진 충격적인 시선에 이어 단절된 현대미술사의 빠진 부분을 이어주고 있는 한 월북작가의 예술적 생명력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감동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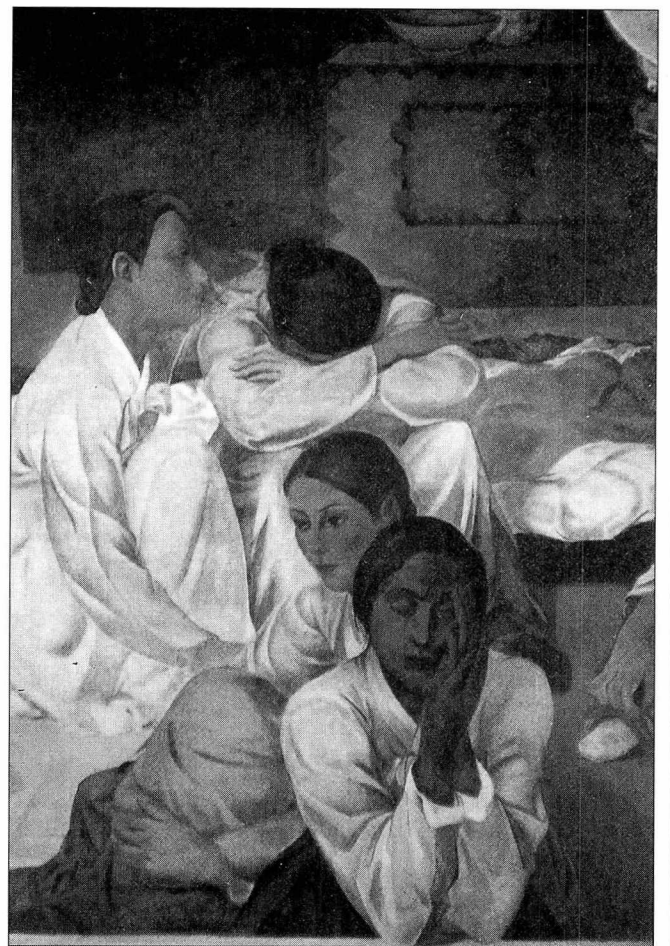
작품 자체의 크고 진한 울림

저자인 김진송씨는 "이쾌대의 작품 자체가 크고 진한 울림을 전해준다. 그 울림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나 그 자신을 둘러싼 신화적 세계 속의 '위대함'에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어낸 삶과 그가 그려낸 세계가 우리가 까맣게 잊고 지내온 세계를 충격적으로 보여 준다는 데서 나온다"면서 그가 아니면 잃어버렸을 해방공간의 격동적인 삶의 현장을 일부나마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낯선 작가를 주목하는 의미를 밝힌다.

이 책에는 60여점의 전작품과 70여점이 넘는 스케치, 습작과 함께 당시 신문자료나 참고자료,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통해 시대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간 화가 '이쾌대'의 삶의 궤적을 생생히 되살려 놓고 있다. 특히 좌우 이념대결이 예술의 영역까지 뒤흔들어 놓았던 해방공간 시기에 '이쾌대가 기고한 세편의 글'〈해방기념과 조형예술동맹전〉(46)〈북조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 1948~49년 무렵. 굳은 의지와 신념에 찬 모습과 그를 둘러싼 정감어린 세계는 세상을 향해 던지는 그의 따뜻하고 건강한 시각이다. (왼쪽)
 〈운명〉(1938). 제2회 이과전 입선작. 어두운 화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침묵과 슬픔의 그림자가 배어 있다. (오른쪽)



선 미술계 보고〉(47)〈고갈된 정열의 미술계〉(49)를 실어 그가 지닌 예술관과 함께 시대와 무관할 수 없던 예술가로서 사회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쾌대는 1913년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서 대지주의 이남사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일찍이 그의 형인 미술가 이여성의 영향도 있었거니와,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1934년 제국미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쾌대는 본격적인 미술활동을 시작한다. 당시 심형구, 김인승, 김학준, 서진달, 장옥진, 구중서, 김원 등의 미술유학생들과 호흡을 같이하기도 한 이쾌대는 특히 인물화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특히 인물화에 높은 관심 쏟아

'인체가 갖는 운동감, 색채변화의 미묘함'에 심취하면서 인물이 주는 풍부한 심리적 상황과 내용성에 주목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누드 스케치와 크로키, 유화작품들은 그가 얼마나 인물에 열심이었는지를 말해준다. 후에 그의 대표작인 〈군상〉에 담긴 숭한 인물들의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표정을 거리낌없이 표현해낼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가 그린 인물은 대상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심리적인, 성격적인 리얼리티'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 여느 화가들과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향토적 소재주의를 표현한 〈무희의 휴식〉이나 사실적인 상황 설정을 회화 요소로 끌어들이는 〈군녀의 휴식〉, 화면 깊숙한 곳에서 점차 비통한 침묵이 흘러나오는 서사적 설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운명〉〈상황〉 등의 작품에서 그런 면모를 읽을 수 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군상〉시리즈 역시 시대정신을 구체적 인물형상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인물구성과 표현이 우리 근대미술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걸작이라는 평가다.

이쾌대의 '월북'은 수많은 월북 예술가들의 그것처럼 역사의 격랑을 실감케 한다. 한국전쟁 때 어머니의 병환으로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서울 수복에 앞서 북으로 가는 도중 국군에 체포돼 부산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

휴진후 남북 포로교환 때 북한으로 가게 된다.

이쾌대를 새롭게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작품들이 갈등과 질곡으로 가득한 우리나라 근대미술과 '근대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서구미술을 받아들이면서 '전통'을 확보하려는 내적 갈등은 이쾌대의 작품에서도 나타나는데, 서구적인 넘새가 질으면서도 이 땅, 이 민족의 향토성을 앞세운 그의 작품들은 바로 우리 미술사에 누락돼온 '근대적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격동과 비극의 근현대 역사의 한가운데서 사상적 흐름을 작품으로 선명하게 밝혀온 이쾌대는 기나긴 시공간의 공백 속에서 다시 찾아낸 '우리의 작가'임을 이 예술인 탐구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열화당/A4/152면/60,000원

—김지원 기자

